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 시의 프레임 고찰

박지학(전북대)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4. 모순과 인도자의 프레임 |
| 2. 1990년대 북한 시의 프레임 | 5. 나오며 |
| 3. 구속과 해방의 프레임 | |

1. 들어가며

『조선문학』에 남한 작가의 시가 처음 게재된 것은 1991년 8월호이며, 2000년도까지 게재되다가 중단되었다. <남조선>으로 게재된 총 19편의 시 중에서 남한의 시로 확인한 시는 8편이며, 일부 작품은 남한에서 찾을 수 없는 작품으로 그 시인 역시 가상의 인물로 창작되었다. 또한 실존하는 남한 시인의 작품 역시 전문을 상재했으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강만식¹⁾은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 시의 범위를 ‘남북 작가’로 확장하는데, 그것은 『조선문학』에 <남조선>으로 게재된 시 전체가 남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²⁾

『조선문학』은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북한에서 발행되

-
- 1) 강만식, 『북한 『조선문학』에 소개된 한국 시인의 시작품들』, 『통일문학』6호, 2005.
 - 2)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문학』에 <남조선>으로 수록된 작품을 편의상 남한의 시로 지칭하고자 한다.

는 권위 있는 순문학지이다. 1990년대 북한 시문학의 양상은 『조선문학』에서 단적으로 확인되는데, 북한의 시인들은 『주체문학론』을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선문학』 실린 작품들은 대개가 『주체문학론』에서 제기된 세부 조항들³⁾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문학은 마땅히 이 위대한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 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의 자주 위업 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여야 한다’ 혹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같은 기본 원칙들을 고수하고 있다.

본고는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 역시 1990년대 북한 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남한 시의 수록 목적을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정하였다. 프레임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⁴⁾ 따라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 이해된다. 프레임은 존재하는 여러 사실 중에 일부에만 틀을 고정시킨다. 한 현상에는 여러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사실에만 프레임이 적용되면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부분 사실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된다. 즉 나머지 사실을 제외한 한 가지 사실에 프레임이 집중되면서 왜곡된 프레임은 강조된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은유적 형태로 제시된다. 은유의 본질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in terms of)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있다.⁵⁾ 한 종류의 사물은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언어에서 이해되며, 이러한 은유에서 의도한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이다. 레이코프는 프레임에 내재된 은유를 미국 조지 부시 정권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설명한다. 부시의 공화당은 ‘세금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가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받자 여론의 비난을 돌리기 위해 ‘세금 구제’ 정책으로 프레임을 변경한다. 이때 레이코프는 공화당의 세금 감면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구제(relief)’에 담긴 프레임을 제시한다. 레이코프는 구제의 프레임에 내재된 은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제’가 있는 곳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 받는 자가 있고, 그 고통을 없애

3) 김중희,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문학의 방향성』, 『한국문학논총』39집, 한국문화회, 2005, 4, 411~412면.

4) 조지 레이코프, 유나영 역,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삼인, 2013, 17면.

5) 레이코프·존슨, 노양진·나익주 역, 『삶의로서의 은유』, 박이정, 2009, 24면.

주는 구제자가, 다시 말해 영웅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영웅을 방해하려고 하다면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방해하는 악당이 된다. ‘세금’이란 말이 ‘구제’ 앞에 붙으면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은유가 탄생한다. 세금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그를 방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은 고통, 영웅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진다.⁶⁾

본고는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를 1990년대 북한 시문학의 일관된 프레임으로 상정하고, 남한 시 프레임들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프레임과 프레임에 내재된 은유이다. 『조선문학』에 수록된 남한의 시에는 체제 내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프레임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은유로 간주하였다. 먼저 1990년 북한 시의 양상을 고찰하여 일관된 프레임을 도출하고, 북한 시의 흐름으로 유입된 남한 시를 파악하여 프레임에 내재된 은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1990년대에 남한의 시가 『조선문학』에 프레임 강화의 수단으로 상재된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1990년대 북한 체제의 이념에 맞게 변조된 남한 시에서 1990년대 북한 시문학의 층위를 고찰할 것이다.

2. 1990년대 북한 시의 프레임

북한의 문학은 1967년 유일사상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확립을 강조하면서 지속한다. 1967년 이전의 문학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강조하는 문학이었다면, 1967년 이후의 문학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학이다. 1990년대 북한 시의 특징 중 하나는 수령의 형상화이다. 수령의 형상화는 1967년 주체사상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 주제이다. 또한 수령의 형상화에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포함된다. 김정일의 형상화는 1980년대 『불멸의 향도』 총서가 나오면서 본격화되었는데, 『불멸의 향도』는 김일성 형상화를 부각했던 『불멸의 역사』⁷⁾

6) 위의 책, 24~25면.

7) 『불멸의 역사』 총서는 소설 부문, 곧 묘사 문학으로 주체사상을 의식화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깊이 있고 격조 높게 형상화하는

총서의 연장이다. 즉 ‘불멸의 향도’는 김정일 후계 계승 작업이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후계 구도 작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대의 혁명 위업을 이어가는 북한식 통치 이데올로기인 선군정치 역시 1998년 제창되긴 하였으나 1998년 이전부터 이미 지속되어 온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1990년대 북한의 시편들은 김일성 사망에 대한 추모를 제외하면 기존의 시적 유형과 유사하다. 이들 시편들에서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선동적으로 작용한다. 1990년대 북한 시에서 ‘선군 정치는 만능의 정치 방식’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는 『주체문학론』을 바탕으로 체제 종속적인 문학 담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1990년대 북한 시의 주요 맥락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 당에 대한 찬양, 반제반미 사상의 고취, 김일성 사망에 대한 추모,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영웅의 형상화, 노동의 신성성 고취, 민족통일의 염원 등이다.

그러나 『주체문학론』에서 제시하는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중 선전선동의 작품 유형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 시는 시기별, 현안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노정하고 있을 뿐, 당과 인민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권력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 또는 반제반미의 사상적 ‘무기’로서 우선적으로 기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을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에 창작된 작품들은, 궁극적으로 북한 문학의 오랜 ‘전통’인 체제 종속적 문학 담론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⁸⁾

『주체문학론』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에서 시적 변용을 시도한다. 그리고 인민의 교양 또는 인민 대중에 복무해야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예속되어 있다. 때문에 남한의 관점에서 북한 시를 예술적 척도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를 연구하는 작업은 먼저 넓은

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첫째가는 원칙적 요구”라는 일이 곧 지도자 김정일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이자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는데, 그 명제의 첫 번째이자 제일 효과적인 방식이 3대 혁명 가극 형식이었으며, 그것보다는 덜 효과적이긴 하나 버금가는 형식을 창출한 것이 바로 『불멸의 역사』 총서라 할 수 있다.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176~177면.

8) 김종희, 앞의 논문, 412면.

범주에서 이러한 체제 지배적인 세계관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유가 전체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언어를 취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본질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생각이다. 언어는 그러한 생각을 전달하고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⁹⁾ 프레임은 은유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때의 은유는 구체화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시어에 대한 개념은 프레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프레임은 한 번 자리 잡으면 변하지 않는다. 세계관에 부합하는 언어를 곧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상식은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늘 자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결국 상식도 이데올로기적으로 기능한다. 즉 지배 계급의 권력은 지배계급의 사고가 모든 계급의 '상식'으로 변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육체노동자들이 경영자들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데올로기적 상식이며, 또한 오락을 시간낭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역시 이데올로기적 상식이다.¹⁰⁾

레이코프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중심점을 은유로 분석하면서 국가를 한 가족으로 보는 은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한다. 그것은 국가와 같은 큰 사회 집단을 가족이나 공동체 같은 작은 집단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은유이다. 이것을 국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투사해서 가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모델을 제시한다.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과 '자상한 부모의 가족'이다. 레이코프는 이 모델을 각각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입장으로 분석한다. 그중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 모델은 1990년대 북한 시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한다. 엄격한 아버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 즉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벌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벌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매질도 포함된다.¹¹⁾ 따라서 레이코프는 국가를 가족의 은유로 파악하고 있으며, 가족의 상위자인 아버지의 모델을 제시한다. 주체사상으로 표방되는 김일성 사상의 기원은 항일무장투쟁에서 유

9) 조지 레이코프, 앞의 책, 26면.

10) 존 피스크, 강태완 역, 『문화커뮤니케이션론』, 한빛, 1997, 167~168면.

11) 조지 레이코프, 앞의 책, 31면.

래한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에서 나온 혁명적 수령관을 중심으로 인민의 희망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존재가 된다. 주체사상은 1970년 당 대회에서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규정되는데 이러한 주체사상의 강조는 곧 아버지 은유의 실천이다.

『주체문학론』에 내재된 아버지의 은유에는 내러티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신화적 은유와 관련된다. 앞서 제시했듯이 은유는 낯익은 개념으로 낯선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신화적 은유로 파악하였다.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는 꿈이 개인의 잠재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두려움과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화도 특정 민족이나 문화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억압된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모순으로부터 나온다¹²⁾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신화의 내러티브는 하나의 은유과정이다. 내러티브에는 선과 악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인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사회가 그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은유적인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체감하도록 한다”¹³⁾ 것이다.

레이코프의 정치 은유 역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의 은유화로 이해할 수 있다. 레이코프가 제시한 ‘엄격한 아버지’의 은유에 따라 도덕적·비도덕적 추상적인 대립 틀이 구성된다. 이 추상적 대립 틀을 구체화할 인물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 구체적인 인물과 역할이 곧 아버지의 은유로 상징되는 수령이다.

『주체문학론』은 내러티브를 형성하며, 신화적 은유를 내포한다. 북한의 혁명 역사에서는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가 1938년 11월에서 1939년 2월까지 북부 국경 일대를 다시 진출하는 과정을 ‘고난의 행군’으로 기록한다. 고난의 행군 정신은 그 때 김일성을 수령으로 한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지키기 위해 싸운 항일 유격대원들의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을 일컫는다.¹⁴⁾ 1995년 대홍수 사건을 전후로 북한은 식량난과 경제난에 봉착한다. 이때 북한은 ‘수령이 높이 쳐들었던 붉은 기’를 혁명의 프레임으로

12) 존 피스크, 앞의 책, 214면.

13) 위의 책, 167면.

14) 노귀남, 『김정일 시대의 북한문학』, 『북한 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150면.

제시한다. ‘붉은 기’는 환유적으로 수령을 나타내며, 그의 투쟁 정신을 옹호한다. ‘높이 쳐들었던’은 은유적으로 자유 또는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일투쟁 시기의 대립 구도에서 투쟁 동지들이 보여주었던 투쟁 정신, 수령결사옹위 정신 등에서 구체성을 부여받는 인물은 김일성¹⁵⁾이다.

또한 1990년대 북한 시문학에는 90년대 북한 사회의 경제 실정을 극복하고자하는 실천적 측면이 집중되어 있다. 앞서 제시한 고난의 행군과 붉은 기 사상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반제·반미사상의 표출도 드러난다. 약자로 대변되는 노동자나 농민의 의식을 다룬 작품도 보인다. 통일의 염원을 다룬 작품도 있었으나 이는 반미사상의 연장이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는 프레임에 내재된 은유에서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 ‘고난의 행군’과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통일’ 등의 소재에서는 민중 또는 인민의 ‘해방’을 촉구하고 있다. 해방에는 억압하는 자가 존재하며, 억압에서 해방으로 이끄는 선도자가 있다. 이것은 <인생은 구속이다>¹⁶⁾는 은유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인생이 신체의 구속이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곧 <억압은 구속이다>의 은유이다. ‘해방’이 ‘고난의 행군’, ‘노동자’, ‘농민’, ‘통일’ 등의 주제와 결부되면 억압, 고통, 영웅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이 형성된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는 넓은 의미에서 억압의 프레임을 강화하여 해방의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프레임은 제시된 프레임을 부정할 때 강화된다. 예컨대 한강 다리 위에서 투신을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강 다리 위에서 있는 사람은 투신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때 난간 위에 “뛰어내리지 마시오”라고 적힌 문구가 있다면 이 문구를 읽은 사람은 뛰어내리는 프레임을 떠올린다. 따라서 제시된 프레임을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프레임이 강화되는 효과로 작용한다. 때문에 프레임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은 반대되는 새로운

15)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되살리고, 사상 혁명의 내용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로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11.20)’가 지목된다. 공산주의 교양이란 인민들에게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것인데, 항일빨치산들이 공산주의자의 풍모를 보이고 그러한 혁명정신을 실천한 예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항일 빨치산이 공산주의자였으므로 그들을 가르치고 이끈 김일성은 최고의 공산주의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항일혁명전통의 부활은 김일성을 유일한 지도자로 하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합리화한다.

- 신형기, 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235~236면.

16) 레이코프·터너, 이기우·양병호 역,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1996, 37~38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선 문구 대신 ‘사랑, 배려, 가족’ 등의 프레임을 사용하면 그 언어를 접한 사람은 반대의 프레임을 떠올린다.

1990년대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 역시 ‘해방’의 프레임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프레임은 각각 억압을 상징하는 시어와 결합하여 프레임을 강화한다. 사회 전반의 모순을 억압의 프레임으로 강조한 뒤에 억압과 관련된 시어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들은 각각 해방, 깨어있는 의식으로의 전환, 투쟁의 프레임을 상기시키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치환된다. 따라서 프레임의 부정으로 강조된 프레임이 새로 제시된 프레임에서 더욱 응집되어 표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조선문학』에 게재된 남한 시는 1991~2000년까지로 1990년대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 역시 같은 프레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대내외적인 상황을 ‘억압’의 프레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다시 사회의 부정적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강화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 확보라는 프레임이자 의도성이 개입된 창작물이다. 다음에서는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 시에서 이러한 프레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3. 구속과 해방의 프레임

『조선문학』에 게재된 남한의 시는 총 20편이다. 이 중 김오의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는 1999년 1호에 중복 게재되어 있다. 따라서 중복 게재된 시편을 제외한 <남조선>의 시는 총 19편이다. 『조선문학』에 실린 실존하는 남한 시인과 실제 시작품은 고규태, 김남주, 박봉우, 양성우, 이재무의 작품뿐이다. 나머지 작품은 북한에서 임의로 창작하여 남한 시인의 이름만을 빌려 수록한 작품이다. 고규태의 시는 『고쳐부르는 나의 류행가』만 찾을 수 있었을 뿐 『반미의 기발』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태진, 정중철, 라종영, 김성순, 김호, 김오, 김훈의 시는 남한에서 발행된 시편에서는 찾을 수 없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의 집체작으로 게재된 『통일조국 만만세』는 확인할 수 없었다.

계국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체문학론』 간행 이후 90년대 북한 문학에 등장하는 주요 제제이나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미 지속되어온 제제이다. 그러나

90년대 북한 문학에 반제 사상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은 당시 북한 사회의 실정과 결부지어야 한다. 북한은 당시 대량 살상 무기 보유국으로 지목받게 된다.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를 주도한 것이라 파악한다. 따라서 북한이 내세우는 쟁점은 자주통일과 함께 반미사상을 고취하는 것이다. 핵 보유설 유포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 시기에는 미국을 겨냥한 혁명의 강도를 대내외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북한 시의 주된 제재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에서는 제국주의가 억압의 프레임으로 먼저 제시된다. 이것은 곧 구속의 프레임이다. 미국의 한반도 장악은 남한의 미군 주둔과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의미한다. 이때 억압의 프레임을 연상하는 시어를 사용하면 구속의 프레임이 강화된다. 구속 프레임의 강조는 자유, 해방, 민중 의식의 전환 혹은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이는 곧 해방의 프레임으로 이어진다.

양키야말로 학살의 숨은 원흉이고/ 양키야말로 이 땅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이같은 사실을 일깨워/ 비로소 함께 일어난 지금//
양키야 아메리카야 악의 제국이야/ 고쳐 부르는 나의 노래 나의 류행가는/
안과 밖 어디서나 반짝하다 꺾이지 않고/ 끝까지 부를 우리의 노래 우리의
류행가는// 네가 죽어 내가 사는 것/ 너희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 것

-고규태, 「고쳐부르는 나의 류행가」, 1992. 5. 부분

길고 끈질긴 싸움을 위하여/ 패배로부터 승리를/ 파괴로부터 건설을 위하여/
곧고 단단한 기대끝에 우리가 매단 이 기발// 한나산 상상봉, 대구의 네거리/
남도땅 막장의 화순탄광에서도/ 세계 최초로 휘날렸던/ 아버가 서늘히 식어가
며 건네준 기발// 그것이 육신의 죽음을 부르는 손짓이라 해도/ 결코 내릴수
없는 우리들의 기발/ 지금 이 싸움터에서 펴려이는/ 끓는 심장이어// 반미의
기발이어

-고규태, 「반미의 기발」, 1992. 5. 전문

「고쳐부르는 나의 류행가」는 『녹두꽃』에 수록된 작품이다. 반면 「반미의 기발」은 남한 시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고쳐부르는 나의 류행가」에서는 ‘양키’를 프레임의 전면에 내세워 ‘악’, ‘학살’, ‘제국’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프

레이미를 강화한다. ‘양키’로 강조된 부정적 프레임은 “네가 죽어 내가 사는 것”이라는 새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해방에 도달하고자 한다. 내가 사는 것은 생존이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적대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은유가 상정된다. 때문에 미국을 없애는 것이 적대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자 곧 ‘우리’의 해방이 되는 것이다.

「반미의 기발」은 “아버가 서늘히 식어가며 건네준 기발”에 프레임이 있다. ‘아버가 건네준 기발’은 제목에서 보이듯 ‘반미의 기발’이다. ‘아버가 서늘히 식어가며’에서는 생명을 오픈 인지하여 아버지의 죽음을 식어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다시 ‘파배’, ‘파괴’, ‘내릴’ 등의 시어에서 프레임을 강화한다. “끓는 심장”에서 심장은 환유적으로 정열을 의미한다. ‘끓는’ 정열은 정열을 뜨거운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압제에서 아버가 건네준 기발을 뜨거운 열정으로 사수하는 것이 곧 해방으로 드러난 프레임이다.

들어와 총을 메고 이도시 저 도시를/ 활보하고 있는 한/ 나는 아니다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아래/ 직립 보행의 독립이 아니다// 흰돌이건 감똥이건/ 또 무슨색
갈의 알록달록한 인종이건/ 이 강토 산과 들을// 벗িয়ে 너와 나 치욕으로 살지
말자/ 식민지 종속의 배부른 노예로 살기를 거부하고/ 차라리 주린 창자 자유로
채우며/ 직립 보행 독립의 나라로 일어서자/ 칼에 얼굴이 굵히고/ 도끼에 뿌리
가 찍히고 외세 총알로/ 몸뚱이가 온통 별집 투성이인/ 그러고도 삭풍에 의젓한
이 땅의/ 상수리 나무여

—김남주,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 아래」, 1993. 9. 부분

그리하여 그동안 40년동안 양키 제국주의자들은/ 야바위군의 손놀림으로 꼭두
각시 정권을 바꿔치기 하면서/ 떡 주무르듯 내 조국의 아래를 주물러 왔다/
그리고 그들 야바위군들은 자유민주주의 바로 그 이름으로/ 내 조국의 자유의
기발과 민주주의 흠쳐 갔을 뿐만 아니라/ 원조와 경제협력이란 탈바가지들
쓰고 그동안 40여년동안/ 우리 노동자 농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략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농약과 화학비료와 공해산업으로 내 조국의 대기와 토지를 더럽
혔다/ 뿐이라, 그들 신식민주의자들은 시카고의 갱영화/ 텍사스의 카우보이식
맨스를 동원하여 내 조국의 춤과 노래를/ 질식시키고 병신 다리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강건너 마을의 순결한 처녀지를 집단으로 룡육했을 뿐만 아니라/ 끝내
는 겨레의 골수까지 반공의식으로 파먹어/ 우리의 팔과 다리를 마비시키고

민족의 동질성까지 남남으로 갈라 놓았다// (중략) 오 자유의 길 해방과 통일의 길이어

- 김남주, 『길』, 1993. 11. 부분

김남주의 『고개들어 조국의 하늘 아래』는 한자어를 고유어로 바꾼 점과 일부 어휘를 바꾸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수록하였다. 다만 2연의 마지막 행에는 원전에 있던 “빨강게 부끄러운 원숭이 똥구멍이다”가 제외되었다. 이는 관습의 차이로 북한에서 시어를 접했을 때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삭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에서는 억압이 “칼에 얼굴이 굽히고/ 도끼에 뿌리가 찍히고 외세 총알로/ 몸뚱이가 온통 별집 투성이인/ 그리고도 삭풍에”에서 강화된다. 해방의 프레임은 ‘의젓한 상수리 나무’에 집중되면서 인간을 식물로 파악한다. 얼굴, 뿌리, 몸뚱이는 민족의 정신 혹은 국가를 의미하며, 그것에 상처를 내는 행위는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따라서 ‘의젓한 상수리 나무’는 의인화된 상수리 나무의 신체성을 환기하며, 이는 깨어있는 민중 의식의 프레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길』의 주요 핵심은 조국을 몸으로 인식한 데 있다. 시적 자아는 조국의 공간에서 신체적 경험을 “아래를 주물러 왔다”로 표현한다. ‘아래’는 이중 의미를 지닌다. 먼저 생식기로 간주했을 때 아래는 내밀하고 은밀한 부위이며, 분단 상황으로 파악했을 때 남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남주 시 원전의 의미로는 이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하나 『조선문학』에 상재된 의도로 파악했을 때에는 분단 상황으로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내밀과 은밀의 프레임을 강조하면 남한 사회가 중요한 핵심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때 억압의 프레임은 ‘흠쳐’, ‘략탈’, ‘릉육’, ‘마비’ 등으로 제시된다. 그 근원적인 억압은 “해방군으로 가장한 미국의 점령”이다. 따라서 해방의 프레임은 ‘길’이며, 이것은 마지막 행에서 ‘자유, 해방, 통일’로 나타난다.

성조기 아래서/ <대통령>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의 한사람으로 태어난다/
왜 내 머리는 리아무개 박아무개 전아무개하면/ 나를 친애까지 했던 <대통령>
을 <대통령>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폭력배, 사기꾼, 모리배, 매국노, 배신자.../
그 따위 못된 이름으로 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것일까// 성조기 아래서// (중략//
자본가를 현금이나 미국산 총구로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니라/ 산과들에서,
공장에서, 조국의 하늘 아래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대

『<대통령> 하나』에서 주목할 점은 1~2연에서 반복되는 “성조기 아래서”에 있다. 원전에서는 1연에 “성조기 아래서”가 아닌 “미군이 잡아 준 터에”로 수록되었다. 또한 『조선문학』에 게재된 시의 2연에서 첫 행은 원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임의적으로 “성조기 아래서”를 첨가하였다. 동일 시구의 반복은 강조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성조기 아래서”에 의미가 집약되어 있고, 의미의 집약은 곧 프레임을 의미한다. ‘성조기’는 미국의 국기를 나타내지만 제국주의 전체를 수반한다. 따라서 성조기는 환유적 장치로서의 프레임으로 기능한다. 이 시의 주된 소재인 ‘대통령’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 프레임은 “땀 흘려 일하는 손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하나”에서 구축된다. 김남주의 원전에서는 이 부분이 없지만 『조선문학』에서는 첨가되었다. 앞 연에서 ‘대통령’은 ‘성조기’ 아래에서 미국의 속박을 받는 대통령이며, 자수성이 결여된 인물로 제시된다. 이때 ‘대통령’은 미국과 동시에 미군정 하에 있는 남한을 비판한다. 따라서 “땀 흘려 일하는 손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역시 민중의 깨어있는 의식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재무의 『빨래를 하며』에서도 억압의 프레임이 강조된다. “이웃들의 피와 땀/ 눈물나는 생애를/ 굶아먹고 토막내운”의 프레임은 이웃들의 삶을 먹어치우고 해부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방망이를 대야하는 것”이라는 응징의 프레임으로 귀속된다. 이는 ‘해방’의 프레임에서 생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북한이 제국주의를 ‘억압’의 프레임으로 직접 상징한 데에서 출발하였다. 각각의 구속 프레임은 여러 시어와 결합하여 ‘해방’의 프레임을 생성하였다. 다음에서 언급할 내용은 분단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분단 상황은 이미 제국주의에 의해 형성된 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 열거될 시들은 미 제국주의의 원인으로 야기된 분단 상황에서의 통일, 즉 해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는 박봉우의 『황지에 꽃은 피어나리』, 양성우의 『백두산』, 이재무의 『분단절』이 해당된다. 박봉우, 양성우, 이재무의 시는 모두 실존 시인이며, 시

역시 원전의 수준으로 수록하였다. 다만 두음법칙, 사이시옷 등 일부의 철자 법만을 바꾸거나 일부 행을 개작한 점이 나타난다. 박봉우의 『황지에 꽃은 피여나리』의 원 제목은 『황지에 꽃핀』이며, 마지막 연에서 원전의 “그때 내 조국의 무덤 곁에”를 “그때 내 조국은 무궁하고”로 교체하였다. 양성우의 시는 수식어를 일부 바꾸거나 행의 문장 순서를 바꾸었다. 또한 이재무의 『분단절』은 한 연의 시를 4연으로 연 구분하였으며, 원작의 “사립마다의 태극기”를 “사립마다의 기발도”로 변경하였다.

분단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통일이라는 과제는 1990년대에 들어 더욱 활발하게 창작된 시의 제재였다. 당시 문익환, 임수경 등의 남한 인사의 방북은 북한 사회에서 통일의 열기를 더욱 고양시키는 촉매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방북 인사에 대한 북한의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문학작품에서도 중요한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정작 2000년대 이후에는 통일시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아마 ‘6·15민족공동선언’의 구체적인 평가와 실천이 아직 여러 국내외정세와 뒤엎히면서 현실적으로 유보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¹⁷⁾

박주택¹⁸⁾은 1990년대 조국 통일의 대표시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한다. 남조선 잃어버린 낙원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회복의지를 보이는 점, 분단된 조국의 근원이 미제와 남한 ‘과소 원쑤’에 있다고 전제하고 미제국주의와 남한 정권에 대한 투쟁과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 해방 후 혁명 투쟁 정신의 계승을 통해 체현되는 조국 통일 혁명 의지 등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 시의 다른 시편들을 고려했을 때 통일 의지에 관한 시는 다소 유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프레임은 존재한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 산지도/ 오래 되었다//(중략)나는 남/ 너는 북/ 량단된
가슴팍에// 서로의 비극은 뼈아프다//(중략)한피죽/ 한겨레가/ 운동 합창하는
날/ 남북이 서로 마음 터놓고 만나는 날...// 녹슨 철로우에/ 진달래 피어 웃으리

17) 홍용희,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시의 미적 가능성』, 『한국문학논총』39집, 한국문학회, 2005, 126면.

18) 박주택, 『1980년 이후 북한문학의 흐름』,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102면.

라// 그때 내 조국은 무궁하고/ 력사는 아지랑이같이 다시 피어나고/ 우리는
가난하게 산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 박봉우, 『황지에 꽃은 피어나리』, 1992. 8. 부분

흙이란 흙은 다 내 흙이고/ 풀이란 풀은 다 내 풀인데/ 내 땅에서 내 발바닥으로
저 백두산에/ 내 못가네/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내 어찌 못가리
/ 병어리 한 시절이 드디어 끝나고/ 남과 북의 말뚝 뽑은 꽃피는 길을/ 얼싸안고
덩더러쿵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라/ 저 백두산에 못가게 하네/
저 백두산에 내 어찌 못가리/ 내 손으로 이 칼날의 숲을 불놓아 태우고/ 살아서
저 백두산에 내가 가리

- 양성우, 『백두산』, 남조선소 책자 『민주통일』에서, 1992. 12. 부분

빈마음 빈손으로/ 약속의 첫발 내디더야 할 날/ 축제다 경축이다 해방이다
뭐다/ 그런 헛것 모두 집어 치우고// 혈육의 끈 이어주고/ 동강 난 논밭의 상처
아물게 한 후/ 남남북녀 혼사도 맺고/ 평양댁 광주댁 사돈이 되고// 되고되고
또 되어야 할/ 그날 그리며/ 통일의 나무 밑/ 깊숙이 거름 듬뿍주어야 할 날/
아프게 아프게 울어야 할 바로/ 분단절이다 사람들아

- 이재무, 『분단절』, 1993. 8. 부분

박봉우의 『황지에 꽃은 피어나리』에서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드러낸다. 이때 억압의 프레임은 ‘량단’이다. 시의 전개 과정에서 양단은 ‘빼아픔’의 어휘로 강조되어 “력사는 아지랑이 같이 다시 피어나고”로 치환된다. 즉 양단의 프레임이 회복과 희망의 프레임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원전의 “그때 내 조국의 무덤곁에”가 “그때 내 조국은 무궁하고”로 변용된 점이다. 원작의 의미대로 무덤의 의미를 해석하면 양단을 구속으로 인지하게 한다. 남과 북은 ‘나누어 산지’ 오래되었고 ‘양단’의 상황이다. 따라서 양단은 물리적 투옥이다. 이것은 곧 억압의 프레임이다. 물리적 투옥에서의 해방은 ‘무덤’이 지닌 은유에서 드러나는데, 무덤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해방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데 분단된 현실은 죽음이며, 이는 곧 분단된 조국이 끝나는 날인 해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억압의 프레임에서 자연스럽게 해방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그러나 『조선문학』에 게재된 시에서는 ‘무덤’이 ‘무궁’으로 변용되었다. 1990년대 북한 서정시 전반에서 은유적 표현이 미약했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조선문학』의 시어 변용은 자연스럽다.

양성우의 시에서 억압은 ‘말뚝’으로 제시된다. 말뚝 때문에 시적 자아는 백두산에 가지 못한다. ‘말뚝’으로 상징되는 억압의 프레임에서 시적 자아의 해결 의지는 ‘이 칼날의 숲을 불놓아 태우’는 것으로 귀결된다. 칼날의 숲은 남북의 대치 상황을 의미하며, 불을 놓아 태우는 것은 소멸을 의미한다. 소멸은 죽음이며, 박봉우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죽음은 해방을 은유적으로 내포한다. 죽음은 궁극에는 종착점을 향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집에 대한 관습적 이미지로 마지막 종착점으로서의 자신의 집으로 향해가는 것과 결부된다. 그 종착점은 백두산이며, 억압의 프레임이 통일의 의지로까지 확대되는 프레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마찬가지로 이재무의 『분단절』에서는 ‘동강난 논밭’이 억압을 반영하고 있다. ‘동강난 논밭’은 ‘상처’, ‘슬픔’ 등이 프레임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아프게 아프게 울어야 할” 날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사람들이 분단절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강난 논밭’에서 생성된 프레임은 “통일의 나무 밑/ 깊숙이 거름을 듬뿍 주어야 할 날”로 이어져 결국 통일에 대한 노력과 갈망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4. 모순과 인도자의 프레임

『조선문학』에 게재된 시 중 권력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용된 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남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시와 김정일 송가 형식의 시가 그것이다. 남한 사회의 모순을 드러낸 시에서는 경영자와 노동자로 대비되는 자본주의의 모순, 지식/도시와 반대되는 농민의 주체적인 역할, 광주민주항쟁에서 제기된 군부 정권의 모순을 다룬다. 모순의 프레임에서는 부조리한 현실과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인도자의 프레임이 형성된다. 따라서 모순의 프레임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해방의 프레임이 제시되는데, 이때 해방은 인도자의 프레임으로 나타난다. 인도자의 프레임은 김정일 송가 형식의 시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자본주의의 모순 드러낸 시로 조태진의 「간판을 보면서」, 정중철의

『아들에게』가 있고, 농민의 자각을 표출한 시에는 김성순의 『아아! 우리 농민 회』가 있다. 그리고 광주민주항쟁을 다룬 시로는 라종영의 『아,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다』와 김오의 『광주이후』가 있다. 또한 집체작 형식의 『통일조국 만만세』도 상재되어 있는데, 이 시는 1990년대 북한 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모두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할만하다. 그러나 이 다섯 편의 시편은 실존 시인이 아니거나 실존 시인의 실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며, 이는 곧 권력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까지 확장된다.

더는/ 참을수도 속을수도 없는 해방의 팔뚝으로/ <사원을 가족같이>/ <공장을 내 집같이>/ 뻘뻘한 자본가의 낯짝같은/ 저 허울좋은 간판을 패대기쳐야 할 때가 왔다// 짜냈다/ 꿏아버린 육신을/ 생산량 초과달성으로 납품기일 완수로/ 수많은 낮과 밤을/ 조출잔업/ 특근철야/ 후일특근...//그랬었구나/ 뼈마른 우리들의 몸뚱이를 조이고 후러치면서도/ 기름칠도 해주질 않았구나/(중략)로동의 벗이여/ 벗들이/ 낮 뜨겁게 낮 뜨겁게/ 저 공장벽에 원대한 우리의 노래를 쓰자꾸나/ <로동해방투쟁 만세>

- 조태진, 『간판을 보면서』, 1991. 8. 부분

아득한 이 가난이/ 애비에게 이르러 더욱 찌들어/ 때마다 너와 네 어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무 말 못하고 애써 외면해버리며/ 애꿎은 담배만 태우는/ 이 애비의 가슴도 찢어놓지만/ 근로기준법 명시된 열일작업시간의/ 수배나 되는 시간을/ 그것도 모자라 특근이다 야근이다 휴일도 없이/ 흐릿한 불빛아래 피발선 눈을 비벼가며// (중략) 남의 몫 가로채지 않는/ 남아 있는 것마저 앗아가지 않는/ 몇몇한 로동자가 되라는 것이다// 아들이/ 마음 하나밖에 줄것이 없는 내 아들이

- 정중철, 『아들에게』, 1992. 6. 부분

『간판을 보면서』는 노사 관계에서 약자인 노동자의 억압의 프레임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계로 인식하여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기름칠도 해주질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 억압의 프레임은 각각 ‘조출잔업’, ‘특근철야’, ‘후일특근’ 등의 시어로 응축된다. 이 같은 시어는 환유적으로 자본가를 의미하는 ‘간판’에 제시되면서 ‘패대기’쳐야 할 대상으로 드러난다. ‘패대기’는 곧 노동자의 투쟁 혹은 해방의 프레임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이 시는 노동자의 억압의 프

레이프에서 노동자의 해방을 확고한 어조로 강조하였다.

「아들에게」는 이와 반대로 강한 어조를 표출하지는 않는다. 특근과 야근을 해도 아들의 등록금을 낼 수 없는 노동자 아버지의 심정을 아들에게 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시 역시 「간판을 보면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특근’과 ‘야근’으로 상징되는 억압의 프레임이 제시된다. 이 시에서 해방의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아들에게 ‘떳떳한 노동자’되기를 바라는 당부로 이어진다. 이때 ‘떳떳한 노동자’는 시적 자아의 의지는 아니다. 아들에게 전가된 시적 자아의 바람일 뿐이다. 이는 ‘마음 하나밖에 줄 것이 없는’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억압의 프레임에서 희망의 프레임이 도출되는 부분은 ‘아들이’에 집약된다. 따라서 이 시는 아버지의 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후대에서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적 자아의 염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인도자의 프레임은 영웅적 지도자 등장할 ‘후대’로 귀결된다.

아아! 우리 농민회 농민의 벗/ 그 이름 우에 영광 있으라/ 부러진 뼈 먼지처럼
쌓인 죽음의 골짜기마다/ 그대는 바람처럼 불어가거라!/ 속삭이는 봄의 미풍/
때로는 성난 폭풍우로/ 모든 악과 거짓을 부시고//(중략)이 땅의 생명을 소생케
하라 아 그대는 듣는가 지금도/ 갑오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 기미년 독립 만세
소리/ 4.19 학생들의 웨치는 소리/ 광주 민중봉기 시민들의 피울음 소리// 아
진정 나만 살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리자/ 아 그대는 어떤 지위 어떤
제복일지라도/ 이 순간 겨레의 량심으로 되돌아가자/ 살고저 하는 자는 죽고/
죽고저 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 어둠속에 타오르는 화불! 새벽을 알리는 진리
의 사자!/ 보무도 당당히 나아가리라//(중략)아아! 농민의 벗 우리 농민회/ 그
이름 우에 영광 있으라!

- 김성순, 「아아! 우리 농민회」, 1996, 8. 부분

이 시는 깨어있는 농민이 될 것을 강조한 시이다. 이 시에서 억압은 ‘죽음의 골짜기’로 나타난다. “이 땅의 생명을 소생케 하라 아 그대는 듣는가 지금도/ 갑오 농민들의 아우성 소리/ 기미년 독립 만세 소리/ 4·19 학생들의 웨치는 소리/ 광주 민중봉기 시민들의 피울음 소리”에서 보이듯 죽음은 과거의 억압을 은유한다. 이러한 죽음을 ‘바람처럼 불어가거라’고 제시하면서 죽음을 다

시 시작으로 인식하게 한다. ‘죽음의 골짜기’ ‘불어가거라’, ‘부시고’, ‘소생케’ 등의 시어와 결합하여 ‘소생’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다시 ‘시작’으로 인식되어 궁극의 가치에 도달하는데, 이것은 농민회의 정신이다. 여기에서 주된 시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민족의 억압 시대에서 죽음은 민족정신을 소생하게 하는 시작이며, 이 시작은 또 다른 농민 의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족의 수난 시대에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때의 지위는 ‘지식/도시’의 대비 개념이다. 따라서 ‘겨레의 양심’이 있는 자는 ‘진리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서민인 농민 역시 ‘죽음의 골짜기’인 억압의 프레임에서 소생으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날의 함성/ 그날의 분노/ 그날의 치떨림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직도 발목을 죄여오는/ 그날의 압제/ 그날의 고문/ 그날의 공포를/ 영영 끊어버리기 위하여/ 래일의 좋은 세상 우리 손으로/ 다름아닌 우리 힘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해불을 들고 나아가다/ 광주의 피맺힌 한을 안고/ 우리 가는 길 멀고 험하더라도/ 민주의 그날까지/ 통일의 그날까지/ 아, 5월!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라종영, 『아, 5월! 광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996. 5. 부분

계엄의 철폐로 더욱 <한국>을 옥죄이고/ 모조리 체포, 투옥, 처형하고/ 무테기로 쫓아내고 목을 자른 뒤/ 이 피비린 암흑의 땅우에/ 일어서는 것은 누구의 왕국이나/(중략)울창한 민주의 수림이리라/ 내 땅을 적진 민중의 피는/ 오직 자주 민주의 수목만을 가꾸나니/ 결코 식민 독재의 거름으로 되지 않으리라/ 그 뿌리는 불타고 줄기는 말라 죽으리라/

- 김 오, 『광주 이후』, 2000. 5. 부분

위의 두 시는 광주민주항쟁을 제재로 하고 있다. 라종영의 시에서는 ‘치떨림’, ‘고문’, ‘공포’의 어휘가 ‘해불’로 전환되어 민주와 해방의 프레임으로 제시되었다. 라종영의 시에서는 자유를 위로 향하는 은유로 파악하여 햇불을 드는 것으로 표현한다. 김오의 『광주이후』에서는 민주를 의인화된 수목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의 수목을 가꾸는 행위는 수림으로 드러나며, 이 수목

은 ‘거름이 되지 않으’면서 독재에 굴하지 않는 정신을 강조한다. 이 시에서 ‘계엄’과 ‘독제’의 억압 프레임은 ‘자주’, ‘민주’의 시어로 확장되어 해방의 프레임을 형성하였다.

두 시 모두 억압에서 해방의 프레임을 지향한 점이 유사하다. 다만 이 두 시의 프레임을 확장해볼 필요가 있다. 광주민주항쟁은 남한 독재 정권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의 독재 정권은 구속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이 구속은 해방의 민중 운동으로 이어진다. 독재 정권의 압박과 이에 반하는 민중의 대립은 하나의 프레임에 포괄할 수 있다. 이것은 남한 사회의 모순된 실상의 프레임이다. 모순의 프레임은 억압, 억압하는 자, 억압에서 구제하는 자 등의 프레임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남한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은 모순된 남한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이 프레임은 북한 사회 체제의 정당성으로 확장된다.

『조선문학』에 게재된 남한의 시 19편 중 김정일 송가의 프레임을 지니는 시는 4편이다. 이 중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가 중복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횡수로는 5회이다. 김정일 송가 시의 유형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수록된 작품으로 모두 김일성 사망 이후의 수록 작품이다.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체제 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 송가 형식의 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남조선>의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김정일 송가를 남한에서 문학적 제재로 다루는 프레임은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도 같은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남조선> 프레임의 제시는 그들만의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이다.

90년대 이르러 양적·질적 팽창을 보이는 김정일 송가 시는 권력 세습이라는 정치적 의미망 구축과 함께 역설적이지만 사회주의 문학론 건설이라는 한정된 창작 제재에 묶여 있는 북한 창작인에게 시적 제재의 다양성을 마련해주는 계기로도 해석된다. 결국 이 시기의 시는 김정일의 숭고한 위대성과 불멸의 절대성을 인민들에게 침윤시켜 주체 조선의 투쟁적 혁명 정신을 결집시키는 교화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김정일 송가 시는 아버지의 은유로 대표되는 인도자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북한 권력

19) 위의 책, 99~101면.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달려온다 달려온다/ 백두백마 달려온다/ 민족의 구성이신/ 천지김동 모시고서/
통일의 광장으로/ 백두백마 달려온다/ 민중아 마중가자/ 장군님 마중가자
- 김 호, 『민중아 마중가자』, 1996. 11. 부분

모진 설한 풍에도/ 진달래와 만병초를 키우며/ 김일성 장군님의 가지가지 전설
을/ 수놓는/ 너는// 그 어떤 분란의 가시줄로도/ 끊을 수 없고 지을 수 없는/
하나의 강토/ 하나의 민족이/ 승업한 자태/ 하늘 높이 솟아 오른/ 우리의 비원//
(중략)이제는/ 민족의 총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남북의 단란을 가져와야 한다고
- 심혜진, 『백두산』, 1996. 12. 부분

우리는 인간 존엄의 그 위대한 진리를/ 수난의 이땅을 안아 일으키고/ 싸워
얻은 신성한 기치우에/ 통일의 려명을 안아 오리라//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희망에 넘쳐 나는 간다/ 어두운 밤길도 어둡지 않다/ 동터오지 않는 려명도
내겐 보인다
- 김 오, 『기쁨에 넘쳐 나는 간다』, 1996. 12. 1999. 1. 부분

구홍빛 붉은 천에/ 일월 같은 글자들이/ 줄줄이 돌아나니/ 아직은 어두운 짓밟
힌 땅에서도// 지도자 동지 우러르는/ 분결같은 마음들이/ 2월을 축하하며/
꽃밭으로 되었구나
- 김 훈, 『수놓는 녀인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남녘 녀인들이
정성의 선물을 삼가 보내었다』, 1997. 2. 부분

한국 작가의 이름으로 『조선문학』에 게재된 김정일 송가의 각 작품은 억압
의 프레임을 ‘남북의 단절’, ‘절망’, ‘눈서리’ 등의 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
다. 여기에서 나오는 ‘해방’ 혹은 ‘구원’의 프레임은 바로 김정일이 된다. 또한
넓은 프레임으로 확장했을 때, 이러한 ‘구원’의 프레임을 염원하는 사람은
<남조선> 사람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남한의 프레임을 북한과 유사한 프레
임으로 동일화하여 김정일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의도적인 개작일
뿐이다. 특히 김훈의 『수놓는 녀인들』은 제목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
님께 남녘 녀인들이 정성의 선물을 삼가 보내었다’라는 부제가 첨가되어 처음

부터 작품에 의도성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문학』에 게재된 시 중에는 집체작 형식의 작품도 존재한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의 집체작으로 소개된 「통일조국 만만세」이다. 집체작은 공산주의의 집단성을 예술에서도 반영하고자 한 시도로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이 모이면 창작된 작품도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남한에서는 집체작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개인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북한에서는 집체작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과 남한에서는 관습화되어 있지 않은 시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통일조국 만만세」 역시 북한에서 임의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 우리의 투쟁이 어찌 동란이라/ 우리 조국의 강을/ 아버지의 땀방울이 스민 대지를/ 소녀의 살결같이 새하얀 옷을/ 뿔나물같은 목숨일지라도/ 어찌 가만 앉아 네놈들에게 짓밟히랴// 형제여, 동포여/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학살의 총성/ 살육의 포성/ 아직도 이 땅/ 어두운 착취와 길다란 쇠사슬은 남아/ 이 땅을 짓누르고있으나/ 5월광주의 진달래의 환성/ 각지를 휩쓴 6월항쟁/ 구사대, 요시찰명다, 농산물가 충격에/ 대항한 로동자, 농민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 집체작, 「통일조국 만만세」, 1992. 7. 부분

「통일조국 만만세」에는 앞서 다루었던 조국 분단의 현실, 반제·반미, 독재 정권, 민중, 노동자, 농민 등이 모두 억압의 프레임으로 등장한다. 또한 민족의 조국은 ‘아버지의 땀방울이 스민 대지’로 나타난다. 아버지는 곧 인도자의 프레임이며, 이러한 구속의 프레임에서 해방의 프레임으로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집체작의 특성이 여러 사람의 작품성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시는 앞서 분석했던 프레임을 모두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조국 만만세」는 1990년대 북한 시 전반의 집약된 양상을 모두 지니고 있다.

5. 나오며

이상에서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를 1990년대 북한 시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먼저 1990년대 북한 시의 전반적인 양상은 국

가를 아버지의 은유로 인식한 데서 시작한다. 1990년대 북한에서 남한 시를 수록한 것은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프레임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은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에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 프레임은 은유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는 은유 과정에서 나온 ‘억압’의 프레임이 또 다른 ‘해방’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양상을 지닌다. 『조선문학』 상재된 남한의 시 역시 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를 분석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조선문학』에 게재된 남한의 시를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단 현실, 그리고 남한 사회의 모순 지적과 권력 체제의 정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남조선>으로 수록된 전체 19편의 시는 ‘구속’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1990년대 『조선문학』 상재된 남한의 시는 북한에서 정치 외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분단의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는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단 의식에 내재된 억압의 프레임에는 구속받는 자와, 고통, 그리고 고통에서의 해방 및 자유·희망 의지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러한 해방 의지는 남한 사회의 모순을 반영한 시편에서 인도자의 필요성을 부여하는 프레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광주민주항쟁을 제재로 한 작품에서는 투쟁과 적극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모순을 해결해줄 수 있는 궁극의 방안은 모순된 남한을 해방시키는 프레임이라는 점이 역시 암시적으로 작용한다. 이 프레임은 북한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체제의 정당성 확보는 김정일 사망 이후 수록된 김정일 송가 시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김정일 송가 시를 <남조선>의 프레임으로 제시하여 북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1990년대 『조선문학』에 상재된 남한의 시는 주체사상에 근거하면서도 대내외적 정치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조선문학』에 남한의 시는 정권 교체 시기에 수령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기능하였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윤식, 『북한문학사론』, 새미, 1996.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 김종희 외, 『북한문학의 이해』, 청동거울, 1999.
- 김종희, 『북한 문학의 이해2』, 청동거울, 2002.
- 머레이 노울즈·로자먼드 문, 김주식·김동환 역, 『은유 소개』, 한국문화사, 2008.
-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2.
- 조선작가동맹, 『조선문학』, 문학예술일간사, 1991~2000.
- 조지 레이코프, 유나영 역,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삼인, 2013.
- _____, 손대오 역, 『도덕의 정치』, 생각하는 백성, 2004.
- 존 피스크, 강대완 역, 『문화커뮤니케이션론』, 한빛, 1997.

2. 논저

- 강만식, 『북한 『조선문학』에 소개된 한국 시인의 시작품들』, 『통일문학』6호, 2005, 158~192면.
- 김종희, 『『주체문학론』 이후 북한 문학의 방향성』, 『한국문학논총』39집, 한국문학회, 2005, 4. 395~423면.
- 박상준, 『북한 서정시 연구』, 『한국문학』, 겨레어문학회, 2007, 99~119면.
- 박순선, 『1990년대 북한의 서정시 전개 양상-『조선문학』을 중심으로』, 『현대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5, 85~107면.
- 이상숙, 『북한문학의 전통과 민족적 특성』, 『한국어문학연구』4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6, 2. 61~94면.
- 이성천, 『『주체문학론』 이후의 북한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303~328면.
- 이지엽, 『1990년대 북한의 서정시 연구-지방화시대의 통일문학』, 『어문학』16호, 반교어문학회, 2005, 59~90면.

- 홍용희, 「북한의 서정시와 민족적 친화성-1990년대 북한 현대시의 통일지향성」, 『시안』1(1), 1998, 39~53면.
- _____, 「통일시대를 향한 북한의 미적 가능성」, 『한국문학논총』39집, 한국문학회, 2005, 117~134면.

【국문초록】

1990년대 북한 시의 전반적인 양상은 국가를 아버지의 은유로 인식한 데서 시작한다. 1990년대 북한에서 남한 시를 수록한 것은 북한 체제가 지향하는 프레임을 내세운 것이다. 프레임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은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하나의 프레임에서 연상되는 여러 가지 프레임은 은유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1990년대 북한 시는 은유 과정에서 나온 ‘억압’의 프레임이 또 다른 ‘해방’의 프레임을 생성하는 양상을 지닌다.

『조선문학』에 <남조선>으로 수록된 전체 19편의 시는 ‘억압’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1990년대 『조선문학』 상재된 남한의 시는 북한에서 정치·외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분단의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는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분단 의식에 내재된 억압의 프레임에는 구속 받는 자와, 고통, 그리고 고통에서의 해방 및 자유·희망 의지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러한 해방 의지는 남한 사회의 모순을 반영한 시편에서 인도자의 필요성을 부여하는 프레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체제의 정당성 확보는 김일성 사망 이후 수록된 김정일 송가 시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김정일 송가 시를 <남조선>의 프레임으로 제시하여 북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1990년대 『조선문학』에 상재된 남한의 시는 주체사상에 근거하면서도 대내외적 정치적인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조선문학』에 남한의 시는 정권 교체 시기에 수령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기능하였다.

주제어 : 북한, 『조선문학』, 『조선문학』에 실린 남한의 시, 남한의 시, 프레임, 은유, 정치 은유, 레이코프

【Abstracts】

A Study on Frames of Poems in South Korea Published in 『Joseon Literature』

Park, jihak

When it comes to a general characteristic of poems written in North Korea in the 1990's, how the poems metaphorically recognized the country as a father was the prominent feature of all. In the 1990's, North Korea published poems written in South Korea, and the purpose of this act was considered a way to express a particular frame which the North Korean system was pursuing back then. A frame would be described in a form of metaphor which would understand and experience one individual object from an angle of another individual object, and because of that, all those frames developed from one single frame would have to go through a process of metaphor. In that regard, in terms of poems written in North Korea in the 1990's, a frame of 'suppression' produced by a process of metaphor was regarded to create another frame of 'liberation'.

A total of 19 poems were included in 『Joseon Literature』 under a name of <South Joseon>, and all those poems were using the same frame, 'suppression'. The poems, written in South Korea but included in 『Joseon Literature』 in the 1990's, criticized the imperialism, which was working as a politically external pressure in North Korea, and found a cause of the

division from the imperialism. The critical review on the imperialism and the frame of suppression internalized in the awareness of division produced frames of suppressed individuals, pains and liberation from pains as well as other frames of freedom, hope and will. In the poems speaking of contradictions of the society in South Korea, such will to liberation implicitly described a frame of how necessary it is to have a leader.

The security of the justice of the system was found collectively in songs for KIM Jeong-il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While presenting the songs for KIM Jeong-il in a frame of <South Joseon>, this led people in North Korea to form a bond of ideological sympathy. The poems written in South Korea but included in 『Joseon Literature』 in the 1990's spoke for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issues even though they were based on the self-reliance. This feature of the poems written in South Korea but included in 『Joseon Literature』, therefore, acted as a way for North Korea to make its people underst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esence of a leader during the transfer of power.

Key word : North Korea, 『Joseon Literature』, Poems written in South Korea but included in 『Joseon Literature』, Poems in South Korea, Frame, Metaphor, Political metaphor, G. Lakoff

이 논문은 2014년 1월 1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